

尹 "고하 송진우 뜻 받들어 보편적·헌법 가치 존중받는 사회 만들겠다"

2023-05-09 04:40 CBS노컷뉴스 박인숙 기자 |

'손기정 가슴 일장기' 지운 송진우 선생 78주기 추모식

국립서울현충원서 거행

"고하(古下) 송진우 선생님은 일제강점기에 근대사를 열어간 선각자이자 민족의 지도자"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세우기 위해 앞장서"

"고하 등 국내 독립운동의 지원이 없었으면 해외 독립운동의 성과는 없었을 것"



고하 선생의 손자인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이 8일 오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독립유공자 묘역에서 열린 고하 송진우 선생 탄신 133주년 및 서거 78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헌화하고 있다. 고하 송진우선생기념사업회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8일 "고하(古下) 송진우 선생님은 일제강점기에 근대사를 열어간 선각자이자 민족의 지도자"라며 "이제 선생님의 뜻을 받들어 보편적 가치, 헌법 가치가 더욱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3일 언론인이자 교육가, 독립운동가로 헌신한 고하 송진우 선생(宋鎭禹·1890~1945)의 탄생 133주년 및 서거 78주기 추모식에서 추모사를 통해 "선생님의 바람대로, 대한민국은 글로벌 리더 국가로 발돋움하여 자유, 인권, 법치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국가들과 연대하고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7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조국의 독립을 위해 항일 운동에 모든 것을 바치신 선생님의 발자취는 시간이 지날수록 선명히 기억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광복 후에는 혼란한 정국에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의 나침반이 되어주셨다"며 "대한민국을 자유와 민주주의에 기반을 둔 국제질서에 편입시키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세우기 위해 앞장섰다"고 고인의 업적을 치하했다.

송진우 선생의 손자이자 윤 대통령의 서울대 석사 논문 지도교수인 송상현(81) 전 국제형사재판소장(서울대 명예교수)은 "추모사와 조화를 보내주신 윤 대통령께 감사하다"며 유족을 대표해 예를 표했다.



고하 선생의 손자인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이 8일 오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독립유공자 묘역에서 열린 고하 송진우 선생 탄신 133주년 및 서거 78주기 추모식에서 유족을 대표해 인사하고 있다. 광인숙 기자

이날 윤 대통령의 추모사는 송상현 교수의 제자인 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이 대독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 국민 방문 직후인 2일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 자리에서 전주혜 원내대변인으로부터 고하 선생 추모식이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직접 추모식에 참석하는 것도 고려했지만 일정상 참석이 어렵자 박민식 국가보훈처장과 최상목 경제수석이 참석하도록 했다.



최상목 경제수석이 8일 오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독립유공자 묘역에서 열린 고하 송진우 선생 탄신 133주년 및 서거 78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의 추모사를 대독하고 있다. 광인숙 기자

재단법인 고하 송진우선생기념사업회(이사장 김창식) 이사인 현병철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추모사에서 "고하 등 국내 독립운동의 지원이 없었으면 해외 독립운동의 성과는 없었을 것"이라며 "1919년 이후 독립운동을 바로잡는 일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송진우 선생은 1925년 하와이 제1회 범태평양민족회의에 김활란, 서재필, 신흥우, 유억겸 등과 함께 참석하

다 그곳에서 처음 만난 이승만의 미국 망명 제의를 거절하고 국내에서 독립운동을 주도했다.



현병철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독립유공자 묘역에서 열린 고하 송진우 선생 탄신 133주년 및 서거 78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고하 송진우선생기념사업회 김창식 이사장의 추모사를 대독하고 있다. 광인숙 기자
현 전 위원장은 "이념에 따른 역사 인식은 끝내야 한다"며 "일제 폭압 속에서 자유민주주의에 매진하신 유일하신 분이자 민족자강운동, 교육·언론·문화·역사 모든 분야에서 헌신하신 분이 고하 선생"이라고 했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오직 조국 독립을 위해 일생을 바치셨던 선생님의 희생과 독립 정신은 여전히 우리 국민들의 가슴에 송고한 애국혼으로 새겨져 있다"면서 "정부는 송진우 선생님을 비롯한 독립유공자분들의 헌신적인 생애와 정신을 우리 미래 세대들이 잊지 않고 계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 8일 오후 국립서울현충원 독립유공자 묘역에서 열린 고하 송진우 선생 탄신 133주년 및 서거 78주기 추모식에 참석하여 추모사를 하고 있다. 보훈처 제공

윤평중 한신대 교수의 '세계대세와 한국의 장래, 21세기에 본 고하 송진우' 추모 강연에 이어 서혜연 서울대 교수의 추모의 노래도 이어졌다.

이날 오후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독립유공자 묘역에서 거행된 송진우 선생의 추모식에는 박민식 국가보훈처장과 이종찬 전 국정원장, 김용덕·김지형 전 대법관, 이기수 고려대 전 총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권오곤 전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 신각수 전 주일대사, 국민의힘 전주혜, 윤주경, 한무경 의원, 김은미 이화여대 총장, 윤승은 법원도서관장, 이용균 중앙고 교장,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 각계 인사 300여 명이 참석했다.

전남 담양에서 출생한 고하 선생은 1915년 중앙학교를 인수해 학생들에게 민족의식을 심어줬으며 1919년에는 3·1 독립 만세 운동을 주도해 서대문형무소에서 1년 6개월의 옥고를 치렀다. 1927년 동아일보 사장에 취임해 문맹 퇴치 운동을 벌였던 선생은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때 손기정 선수의 가슴에 붙은 일장기를 지운 사진을 게재했다가 총독부의 압력으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1945년 광복 후 한국민주당을 조직해 활동하다가 암살당했으며 1963년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됐다.

이 기사 주소: <https://www.nocutnews.co.kr/5939945>